태고종 부원장 선출…28대 집행부 '탄력'

행정부원장 능혜 · 재경부원장 고담 스님 추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종회 제148회 임시회
부장단 임명 동의안 가결
제28대 집행부 구성 완료
원로의원 현호 스님 선출



8월 14일 열린 태고종 중앙종회 제148회 임시회.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가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후 첫 회의를 열어 총무원 부원장을 선출하고 부장단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 제28대 집행부는 진용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8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8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60명 중 42명이 참석했으며 △제5대 원로의원 선출(안) △총무원 부원장 선출(안) △총무원 부장 임명동의(안) △종헌종법 일부 개정(안) △자격기준 정정에 따른 법계 자구 수정사항(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제5대 원로의원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추천한 현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 행정부원장에는 능혜 스님(불심정사 주지), 재경부원장에는 고담 스님(봉원사 부주지)이 각각 추천돼 만장일치 선출됐다.

또한 총무원장이 제안한 총무원 부장 임명 동의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에 도성 스님(반야정사 주지), 교무부장에 정안 스님(선행암 주지), 재경부장에 효능 스님(청련사), 문화부장에 처명 스님(봉원사), 사회부장에 금산 스님, 규정부장에 진화 스님(용천사 주지), 전법사부장에 심원 전법사(수도사 교임)의 임명이 확정됐다.

'자격 기준 정정에 따른 법계 수정사항' 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과 초심위원의 법계가 대덕에서 종덕으로, 지방종회의원과 은사 자격은 중덕에서 대덕으로, 교육원장은 종덕에서 종사로 자격 기준이 상향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도들의 선택을 받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신념과 포부가 종도들의 염원과 함께 한다면 우리 종단은 1700년 전통을 이어 새로운 천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중앙종회가 종단 발전의 선두에 서서 종법수호와 종도 권익보호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애종심으로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발전의 시작을 알렸다. "부원장과 부장 등 신임 집행부는 우리 종단의 지위를 회복하고 종단 운영의 내실을 굳건히 다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더불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 적자 종단으로서 종지종풍을 더 없이 드높이는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향후 종단 발전과 도약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임을 상기하고, 신임 집행부에 신뢰를 보내주길 바란다"며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믿음은 신임 집행부의 원동력이 돼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9월 5~7일 제주도에서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228회 임시회 9월 12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 원로의원 추천 · 교육원장 선출 등

종법개정안 · 종감특위 구성
총무원과 각 산하기관 대상
고강도 종책질의도 예상돼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교육원장 선출의 건 등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 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 종책모임회장단의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까지 인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원로회의 의원 추천(4석)과 반년째 공석인 교육원장, 재심호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다양한 선출 건을 다룬다. 이외에 종법개정안으로는 총무원장 제출 예정인 △승려복지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11월 정기회에 앞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감특위는 모든 종회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무원과 종단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엄3회 회장 삼조 스님은 "일부 종무원들이 신심과 원력이 아닌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종회에서 종책질의를 통해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보통 종무부와 기획실 중심으로 종책질의가 끝나면 순서가 밀린 기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종책질의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이 8월 17일 종단 역점사업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비구니종회의원 '천년을세우다' 후원

8월 17일, 진우 스님 예방서 1000만원 전달

조계종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이 종단 역점사업인 '천년을세우다'를 위해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운 스님을 비롯해 진명 · 혜도 · 정관 · 법해 · 설해 스님 등 비구니종회의원 스님 6명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은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큰 불사에 마음을 내주셔서 든든하지만 아직 부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불교적으로 봐도 포교와 전법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진행상황을 물었다.

정운 스님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이든 경쟁이든 틀에 맞춰 여법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의 주요사업을 위해 비구니종회의원들이 항상 뜻을 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北 인도적 지원 모색을"

8월 17일 김영호 장관 예방서 민간교류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을 예방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사진〉 스님은 "남북관계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북핵 위협 등으로 긴장도가 더 높아졌다"며 "정치 · 군사분야를 떠나 주민들을 도울 길은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개방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긴장도를 낮추고 유연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등을 맡은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정전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 추진해온 남북사찰 합동법회 등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배석했다.

한편 지난달 임명된 김영호 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와 버지니아대 대학원에서 각각 국제정치학 석 · 박사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국립공원 전통사찰 가치 재평가 필요"

진우 스님,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6일 정용욱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게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과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가치 재평가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정용욱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지금은 정교가 분리돼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종교 역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문체부 종무실과 종무실장이 가교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잘 새겨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앞서 정관계 인사들과의 예방에서도 자주 언급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가치가 재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에 있는 전통사찰들은 오랫동안 자연환경을 지켜왔음에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고 수많은 규제를 해왔다"며 "사찰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등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 실장은 "관련 내용을 살펴 종무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최근 열린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선 일에 감사를 표했다. 정 실장은 "박보균 장관께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용욱 종무실장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안전환경정책관 등으로 근무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을 거쳐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출강 · 통신) 속성 교육 (제7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후 3시**(목탁, 필기구 지참)
- 출 강 반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 신 반 : 교재, 교육자료, 강의영상자료(동영상파일) – 메일 또는 카카오톡 발송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